

신기술 개발 사기 의혹 '플래닛82 사건' ①

검찰 수사결과

“허위사실 공시로 주가차익 올려”

글 | 이은정 _ KBS 과학전문기자 ejlee@kbs.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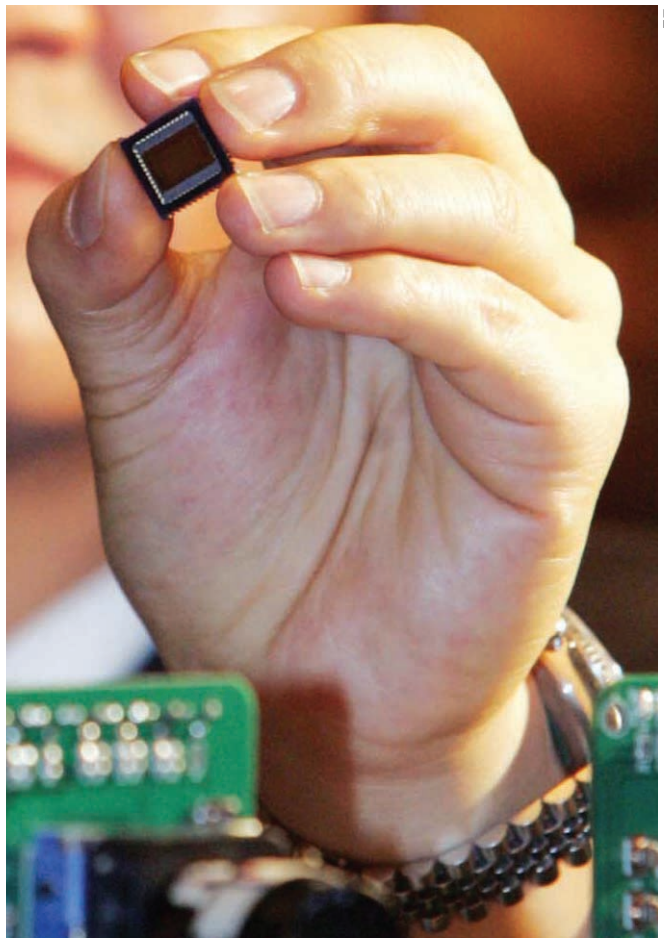
과 학계와 증권가에서 진실 공방을 불러일으켰던 '나노 이미지 센서 사건(일명 플래닛82 주가조작 사건)'이 지난 1월 검찰 수사 발표로 일단락됐다. 이 사건은 정부 출연기관의 신기술 개발 →벤처기업으로 기술 이전→신기술에 대한 진실 논란과 주가 조작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과학 기술에 돈이 결합한 복잡한 사건이었다. 나노이미지 센서 사건을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본다. 첫째는 전자부품연구원의 초고감도 나노이미지 센서 개발, 두 번째는 벤처기업으로 기술 이전과 해당 기술에 대한 의혹 제기, 세 번째는 검찰 수사 등이다.

‘고감도 나노 이미지센서 상용화 칩’ 세계 최초 개발 주장

전자부품연구원은 지난 2001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92억 원의 연구비를 투자해 '나노기술을 이용한 초고감도 이미지 센서 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했다. 이 연구는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가 공동 추진한 '유망전자부품기술개발사업(Electro-0580 사업)'을 통해 실시됐으며 연구 책임자는 전자부품연구원의 K박사였다.

흔히 나노이미지센서라고 알려진 기술의 정확한 이름은 'Single carrier Modulation Photo Detector' 로 줄여서 'SMPD' 라고 한다. 이 기술을 개발한 전자부품연구원은 육안으로 사물 식별이 어려운 0.1룩스 이하의 어두운 장소에서도 사진 촬영이 가능한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술의 핵심은 극장이나 터널과 같은 어두운 장소에서도 플래시 없이 고화질의 동영상 촬영할 수 있는 나노 이미지 센서 칩을 개발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기존 이미지센서보다 100배 이상



영원도트

지난 2005년 11월 10일 '세계 최초 고감도 나노 이미지센서 상용화 칩' 개발성과 발표 및 시연회가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렸다. 주최측은 이 신기술로 어두운 곳에서도 선명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감도를 갖는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전자부품연구원이 개발한 이 기술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진 것은 2005년 11월이다. 2005년 11월 10일 산업자원부는 서울 COEX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이희범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최초의 고감도 나노 이미지센서 상용화 칩 시연회를 열었다. 불이 거의 꺼진 캄캄한 상태에서 촛불 하나만 켜둔 채, 나노 이미지센서를 장착한 카메라가 촬영을 시작했다. 연결된 모니터에서 나온 화면은 그야말로 획기적이었다. 기존 카메라의 영상은 검고 뿌옇게 나와 피사체를 알아볼 수 없는 수준이었으나 나노 이미지 센서를 장착한 카메라는 선명하게 피사체의 움직임을 담아내고 있었다.

당시 산자부가 언론에 돌린 보도자료에는 연간 2조 원 이상의 수입 대체 효과를 내며 2008년에는 국산 제품이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차지해 370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며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적혀있다. 다음날 대부분의 언론은 이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미지 센서 기술이전으로 주가 폭등

전자부품연구원은 나노이미지센서를 개발하던 기간 중인 2003년 12월 24일, 벤처기업 '플래닛82'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다. 2005년 11월 나노이미지 센서 기술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지자 기술이전을 받은 코스닥 등록기업 플래닛82의 주가도 따라 올랐다. 시연회 전에는 주당 1천650원에 불과하던 플래닛82의 주가가 4만6천950원까지 치솟았고 시가총액도 1조 원을 넘어 한때 아시아 나항공을 제치고 코스닥 시장 4위로 뛰어올랐다. 연구개발 책임자 K박사와 참여 연구원들도 20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그러나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3개월이면 양산이 가능하던 제품은 1년이 지나도 제품화되지 않았다. 정부와 언론의 발표를 믿고 투자했던 개미 투자자들의 손실은 점점 커져갔다. 이러한 가운데 언론에서 나노 이미지 센서 기술에 의문을 제기했다.

KBS스페셜은 2007년 5월 20일 <신기술이 만든 풍경 '대박과 의혹'>을 방영했다. KBS스페셜팀은 나노 이미지 센서 기술이 진짜 고감도의 신기술이 아니라 적외선을 이용한 눈속임 기술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나노 이미지 센서 기술은 이미 일본과 홍콩의 과학자들이 특허를 낸 바 있어 원천기술인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산업자원부가 신기술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KBS스페셜이 방영되자 플래닛82는 발 빠르게 대응하기 시작했


| 〈사건일지〉 | |
|--------------|---------------------------------------|
| 2001년 12월 | = 한국전자부품연구원 초고감도 이미지센서 기술 개발 프로젝트 시작 |
| 2003년 12월 | = 플래닛82, 한국전자부품연구원과 나노이미지센서 기술이전 계약체결 |
| 2004년 12월 | = 플래닛82 윤상조 대표, 금융감독원에 이미지센서 개발 정보 공시 |
| 2005년 11월 | = 산업자원부, 나노이미지 센서 제품 시연회 |
| 2006년 12월 | = 증권선물위원회, 윤상조 대표 등 7명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 고발 |
| 2007년 5월 | = KBS스페셜 '신기술이 만든 풍경-대박과 의혹' 방영 |
| 2008년 1월 11일 | = 연구진실성검증위원회 결과보고서 발표 |
| 2008년 1월 31일 | = 검찰, 플래닛82 윤상조 대표 구속 |

다. 일단 KBS에 대해 1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한편 타 언론사에는 해당 보도자료가 잘못됐다는 해명 자료를 돌렸다. 급기야 2007년 5월 29일 언론기관을 대상으로 서울 리베라호텔에서 나노 이미지 센서 공개시연회를 개최하기까지 했다.

검찰 수사 결과·시연회도 가짜, 주가는 조작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지루한 공방이 계속되면서 이 사건은 대중들에게 잊혀져갔다. 그러다 2008년 1월 해당 기술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가 나오기 시작했다. 1월 11일 연구진실성검증위원회가 나노 이미지 센서 기술에 대한 기술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기술검증 내용에 대해 KBS스페셜은 자신들이 주장한 의혹-고감도 촬영 기술이 아니다-이 인정됐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플래닛82측은 검증위원회의 시연에 사용된 카메라가 나노 기술을 채용한 카메라와 사양이 다르며 연구과정에서 의혹이나 표절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1월 30일에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의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플래닛82의 윤상조 대표는 나노 이미지센서 기술의 상용화가 어렵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허위 사실을 공시했고 358억 원의 주가 차익을 올렸다. 또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부당하게 벌어들인 돈 110억 원을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윤 대표의 구속과 함께 연구책임자도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때 코스닥의 대표적인 나노 테마주였던 플래닛82는 2년 연속 적자로 지난해 관리종목에 편입됐으며 지난 2월 말 현재 주가는 1천300원으로 엄청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플래닛82측은 나노 이미지 센서 칩에 대해 빠른 시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주주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시연회를 개최하겠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글쓴이는 서울대 미생물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서울대의대에서 박사학위(생명윤리)를 받았다. 1995년 언론계에 입문 후 경향신문에서 10여 년 간 과학분야를 담당했다.